

7월 29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7월 29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美 증시, 소비지표에 달목..다우 0.13%↓	뉴욕증시가 28일(현지시간) 약보합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음. 가격부담속에 부진한 소비자신뢰지수가 영향을 미쳤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11.79포인트(0.13%) 떨어진 9,096.72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62포인트(0.39%) 오른 1,975.51을,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2.56포인트(0.26%) 하락한 979.62를 각각 기록했다. 뉴욕증시는 약세로 출발했음. 최근 랠리가 시작된 지난 10일 이후 주요 지수들이 12%나 급등한 점이 부담이 되었음. 더욱이 컨퍼런스보드의 7월 소비자신뢰지수가 2개월 연속,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인 점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음. 다만, 오후들어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주요 지수들은 낙폭을 크게 줄였고, 나스닥 지수는 장중 오름세로 돌아섰음. 특히 자넷 옐렌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서 탈피하고 있는 `견고한 시그널`이 보이고 있다고 언급한 점이 장막판 낙폭 축소에 크게 기여했음.
美 5월 주택가격 전월 비 0.5%↑..3년만에 처음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S&P)가 발표한 S&P케이스샐러 주택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 5월 미국의 주요 20대 대도시 단독주택 집값이 전월에 비해 0.5% 상승했고 상승세는 근 3년만에 처음임. 5월 20대 대도시 집값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17.1% 감소했으나 이같은 하락폭은 최근 9개월래 가장 적었고, 17.9% 감소를 예상했던 시장의 전망치보다 좋은 결과였음. 낮아진 집값과 주택상환여건(affordability) 개선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그리고 거래주택중 압류주택 비중의 감소 등이 5월 주택가격지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임.
옐렌 총재 "리세션 탈출 견고한 시그널 보인다	자넷 옐렌 샌프란시스코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강연에서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서 벗어나고 있는 `견고한 첫 징후(first solid signs)`를 내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옐렌 총재는 리세션 탈출의 견고한 사인으로주가 상승, 그리고 집값 하락 및 일자리 감소 둔화 등을 거론했음. 옐렌 총재는 또 미국 경제가 올 하반기부터는 성장을 재개할 것이라고 자신했음.
美 7월 소비자신뢰지수 `예상보다 부진`	미국의 민간경제연구기관인 컨퍼런스보드가 발표한 7월 소비자신뢰지수가 46.6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 49.3에 비해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예상치인 49를 하회하는 수치임. 지수는 지난 2월 사상 최저치인 25.3까지 밀린 이후 개선세를 보이며 지난 5월 54.8까지 상승했지만 최근 두달간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게 되었음.

제목	주요 내용
국제유가, BP발 악재로 67달러선 후퇴	국제유가가 BP발 악재로 배럴당 67달러선으로 밀렸음. 28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9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1.15달러(1.68%) 떨어진 67.23달러로 거래를 마쳤음. 미국의 7월 소비자신뢰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자 경기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었음. 특히 유럽의 대형 에너지기업인 BP의 토니 헤이워드 최고경영자(CEO)가 "원유수요 증가에 대한 징후가 없으며, 회복세가 오래 질질 끌 것"이라고 언급한 점도 악재로 작용했음.
도요타, 상반기 글로벌 車판매 1위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요타는 올 6월까지 356만대를 판매했다. 전년대비 26% 감소했지만 세계 1위 자리는 지켰음. 계열사인 다이하츠와 히노자동차의 판매분이 포함된 수치로 도요타의 반기 매출 감소는 지난 1999년 이후 처음. 도요타는 상반기에도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고전을 지속했으며 엔화 강세와 판매 침체 지속으로 올해 회계연도에도 2년 연속 연간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경상수지 다섯달 연속 흑자..상반기 218억弗 흑자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54억3,000만달러로, 전월 35억달러에서 19억3,000만달러 증가. 지난 2월 이후 다섯 달 연속 흑자규모를 이어가며, 상반기 누적 흑자 규모는 사상 최대 수준인 217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철강제품과 전기전자 제품 수출 증가에 힘입어 상품수지가 전월(48억8,000만달러)보다 18억달러 가량 증가한 66억1,000만달러를 기록. 지난달에 이어수입 감소율이 수출 감소율보다 더 큰 불황형 흑자기조가 이어졌음.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5% 감소한 315억7,000만달러, 수입은 33% 줄어든 249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스타벅스코리아 10년.. 커피 1.7억잔 팔았다	28일 스타벅스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이화여자대학교 앞에 1호점의 문을 연 스타벅스 코리아의 7월 현재 매장 수는 299개. 지난 1999년 6억원이었던 매출은 2006년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겼으며, 지난해에는 1,710억원을 기록. 더불어 스타벅스는 10년간 총 1억7,000만 잔의 커피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 이 중 가장 많이 팔린 커피는 아메리카노로 약 3000만잔이 팔렸음. 지난해까지 판매량 1위를 지켜오던 카페라떼는 웰빙을 추구하는 고객의 성향 등으로 2위로 밀려났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